

# '산타야 놀자' 임실산타축제 개최

### 12월 21일 ~ 25일 치즈스테마파크, 축제장 확대 등 프로그램 다채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축제인 산타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낭만과 추억을 선사한다.

임실군은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스테마파크에서 '2019 임실산타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 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 등을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산타 축제를 올해에는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해 그 열기를 이어간다.

올해 축제는 주제별 구역을 설정하여 임실치즈스테마파크 전역을 크리스마스 축제장으로 만든다.



임실군은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스테마파크에서 '2019 임실산타축제'를 개최한다.

임실치즈스테마파크 주차장을 메인 무대로 만들어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치즈캐슬 앞에서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산타야 사진찍자 ZONE'이 마련되며,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산타야 체험하자 ZONE'도 선보인다.

산타절매와 치즈킬링 등 놀이와 함께 하는 '산타야 놀자 ZONE'과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산타야 먹자 ZONE'으로 구성되어 구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1일에 열리는 개막식은 산타 캐릭터 슈퍼밴드 공연이 펼쳐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캐릭터 코스튬 쇼로 음악과 댄스로 산타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꾸며 줄 예

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가족 트리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성한 가족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가족만의 트리를 만들어 치즈캐슬 포토존에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한다. 신성한 관련 내용은 추후 임실치즈스테마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임실 산타축제에서는 겨울을 대표하는 썰매놀이도 즐길 수 있다. 풍광 열어있는 얼음위에서 나무로 만든 썰매를 타고 노는 즐거운 풍경을 재현하고자 시계탑광장에 썰매장

을 조성하고 바퀴썰매를 탈 수 있도록 산타절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썩썩 신나는 놀이를 즐기고 싶은 어린이들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올해 산타축제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축제로 준비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연인들과 함께 축제장에 오셔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 만드시고, 임실N치즈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 명품지식관광교육 인기

### 노후준비교육 추진 관련 프로그램 90% 만족도 안전 먹거리·치유농장 연계 체험관광 등 명성

교육·힐링·관광·체험이 결합된 특화교육으로 블루오션 향해 나선다.

순창군이 교육을 테마로 힐링·관광·체험을 연계한 명품지식관광교육(노후준비교육)을 추진한 관련 프로그램이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면서 노후준비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

노후준비교육은 베이비부머 등 40세이상 은퇴자의 체계적 노후설계를 돕기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령사회 문제를 교육을 통해 가치관 변화와 실용적 지식보급, 사회관계망 회복으로 근본적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순창은 여기에 안전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순창군 농촌자원인 치유농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등을 힐링 프로그램에 접목해 교육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장수지역 순창의 특성을 살려 노인지도자 교육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0회 7,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제3기 인생대학과정(여가 재무 관계 건강), 미니-메드 스텝 과정

(건강), 남성을 위한 골드-룩 과정(건강, 요리실습), 관계개선 과정으로 숙박·체험형으로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전북대, 전남대 등 저명한 강사진을 대폭 확보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전국의 40대 이후 노후를 준비하거나 은퇴자가 꼭 한번 들려야할 곳으로 정평이 나며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로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3박 4일 과정 중 순창군의 귀농귀촌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 100세 힐링 도시로 홍보하여 교육생과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1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100세 순창을 활용한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명품지식관광교육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도전이 블루오션으로 가는 황금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놀이터 운영

남원항공우주전문대에서는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할 수 있는 2019두드림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놀이터'를 12월 9일까지 사랑의 광장과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계층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전북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참가비는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과학관의 전시 구성은 '공존의 혁신생체모방'이라는 주제로 ▲생물의 과학적 원리나 과정을 모방한 과학기술 ▲생물의 기능을 모방한 과학기술 ▲생체모방의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인류가 나아갈 우주탐구 등으로 구성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부족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북권 거점과학관으로서의 선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항공우주전문대(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추가발굴

순창군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추가 구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군은 그동안 부양비 등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57가구 7명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추가로 10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향후 구제할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현금 지원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 소득평가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원 이하 세대주 기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기준 20만 4840원, 4인가구 기준 41만 5210원의 정액급여를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남대 식품공학과와 MOU체결

###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 농축산·식품 종균 발굴 상호협력

최근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 식품 미생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공동사업 구축, 전문인력 공동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 등 한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기반확충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영민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의 소속인 전남대학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유익균주의 선발 및 효능효과 연구, 미생물발효 연구, 산업화효소 연구, 농축산·식품 종균 소재 발굴 등을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남원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말까지 약70일간 설정·운영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부동산과 채권압류 및 부동산 공매에고 통지와 7대의 차량

공매를 실시해 총 8억7천8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4천8백만원을 징수,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인 후 공매 처분으로 대포차량을 근절과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써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선진 한우산업 기반시설 구축 추진

남원시는 축산업의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9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및 품질고급화를 추진했다.

주요사업은 최적화된 가축사육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한 농후사료급이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발정탐지기,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및 음용수질 개선장비와 효율적 축사관리를 위한 CCTV설치를 지원하고, 스탠촌 및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력 증강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능력암소축군조성 및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인공수정

장역지원사업 등 총 6개의 연관 사업을 추진, 현재 남원시 고급육(1등급 이상) 출현율이 88.3%로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철저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가축질병으로 부터 청정지역 남원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형진우 남원시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꾸준한 사육관리개선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축산경영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으로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한우사육 규모는 850농가에서 3만363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북대비 8.7%, 전국대비 1.0%로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